

04 학교 생활 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세 칸

자율·자치·동아리·진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세 칸이 다릅니다	3
03 봉사활동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세 칸의 **분량**과 **대입 반영 여부**를 한 표로
- ◆ **정규 동아리**와 **자율동아리** — 왜 하나만 가는가
- ◆ 봉사에서 갈리는 자리 — 「(학교)」 표시 하나가 정합니다
- ◆ 진로를 못 정한 것이 예전만큼 불리하지 않은 까닭

01 · 먼저 사실부터

세 칸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세 칸입니다 — 자율·자치 / 동아리 / 진로. 여기에 봉사활동 실적이 따로 붙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입에 안 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선부터 그어 두겠습니다.

칸	분량	대입
자율·자치활동 특기사항	500자	갑니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갑니다
진로활동 특기사항	500자	갑니다
자율동아리	—	안 갑니다
진로희망분야	—	안 갑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	건당 50자	안 갑니다
학교 계획 봉사활동	건당 50자	갑니다

맨 아래 두 줄의 차이가 큼니다. 봉사활동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학교)’로 등록)만 대입에 반영된다

그리고 3학년은 자율·자치활동이 아니라 자율활동으로 적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17개 시도교육청 2026학년도 기재요령(고등학교),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기재요령은 해마다 2월에 새로 나오고 초·중·고가 다르다. 그 해 요령을 확인해야 한다.

02 · 세 칸이 다릅니다

무엇이 어디에 적히나

칸	어떤 일이 여기 적히나
자율·자치	학급·학교 행사, 자치 활동, 학교가 계획한 프로그램
동아리	정규 동아리에서 한 활동
진로	진로 탐색·상담·체험, 진로 관련 수업 밖 활동

둘째 줄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특기사항이 적히고 대입에도 갑니다.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그러니 「동아리를 하나 만들자」는 계획은 지금 제도에서는 값이 크지 않습니다. 정규 동아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남는 자리입니다.

진로 칸의 쓰임이 달라졌습니다

진로희망분야는 대입에 안 갑니다. 「장래희망: 의사」 같은 한 줄은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갑니다. 무엇을 희망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 봤는가가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일찍 못 정한 것이 예전만큼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한 것보다 알아본 과정이 적히는 칸이 되었으니까요.

출처: 위와 같음. 정규 동아리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3 · 봉사활동

가장 헛갈리는 자리

봉사만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헛수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어떤 봉사인가	대입	어떻게 구분하나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것	갑니다	「(학교)」로 등록됩니다
학생이 개인으로 한 것	안 갑니다	1365·VMS 등으로 연계

「(학교)」라는 표시가 갈림길입니다. 학생부에서 그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실적만 적히고 건마다 50자입니다. 무엇을 느꼈는지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 봉사는 헛것인가

대입 자료로는 안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봉사에서 한 일이 진로활동이나 세특으로 이어지면 그건 갑니다. 실적 칸이 아니라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채우는 봉사」와 「무언가 하게 되는 봉사」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앞의 것은 지금 제도에서 값이 거의 없습니다.

출처: 교육부훈령 제555호 및 기재요령 봉사활동 항목,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실적 연계와 등록 방식은 학교가 안내합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세 칸을 채우는 법과 점검표

칸	무엇에 마음을 쓰나
자율·자치	맡은 역할과 거기서 한 일
동아리	정규 동아리에서 이어서 한 것
진로	희망 직업이 아니라 알아본 과정

둘째 줄의 「이어서」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한 번 한 것은 줄이 되고, 이어서 한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 500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쪽입니다.

창체 세 칸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세 칸이 다 채워져 있는가
- ☐ 칸마다 내용이 다른가
- ☐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 인가
- ☐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봉사에 「(학교)」 표시 가 있는가
- ☐ 진로희망분야가 대입에 안 간다 는 것을 아는가
- ☐ 진로 칸에 **알아본 과정** 이 적혀 있는가
- ☐ 이어서 한 활동이 **하나라도** 있는가

다섯째를 꼭 보십시오. 같은 시간을 봉사해도 「(학교)」가 아니면 대입에 안 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창체 세 칸은 「무엇을 더 했는가」를 적는 칸처럼 오래 읽혀 왔습니다. 그런데 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차례로 빠지면서 지금은 「학교 안에서 무엇을 말고 무엇을 이어 갔는가」의 칸에 가깝습니다. 활동을 늘리는 쪽보다 하나를 이어 가는 쪽이 이 세 칸에는 맞다고 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창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동아리를 여러 개 하는 게 좋을까요?

칸이 하나입니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자.

여러 개를 하면 그 500자를 나눠 써야 합니다. 세 개를 하면 하나에 170자쯤입니다. 그 길이로는 무엇을 했는지 적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안 갑니다. 정규 동아리 하나에 자율동아리 둘을 더해도 대입에 가는 것은 정규 하나입니다.

그러니 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 동아리 하나를 3년 이어 가는 쪽이 500자를 채우기에도 낫습니다.

다만 재미로 하는 것까지 말할 일은 아닙니다. 입시 계산으로 여러 개를 하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Q.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채워야 하나요?

대입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 봉사 실적은 아예 안 갑니다.

예전에는 「몇 시간 이상」을 말하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흔했습니다. 지금 그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정한 졸업 요건이나 시도교육청 기준은 별개로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그건 대입이 아니라 학교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입에 안 간다고 봉사가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시 때문에」 시간을 채우는 일은 지금 제도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셔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창체는 세 칸에 각 500자이고, 자율동아리·진로희망분야·개인봉사는 대입에 안 갑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졸업 요건과 시도교육청 기준은 대입과 별개이니 학교에 확인하십시오.